

■ 지부탐방 ■

지부단합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철원지부



◀ 좌로부터 김근수 회원, 이태동 회원, 성시명 지부장, 임관호 회원, 김차복 상무, 임진행 간사

취재 : 이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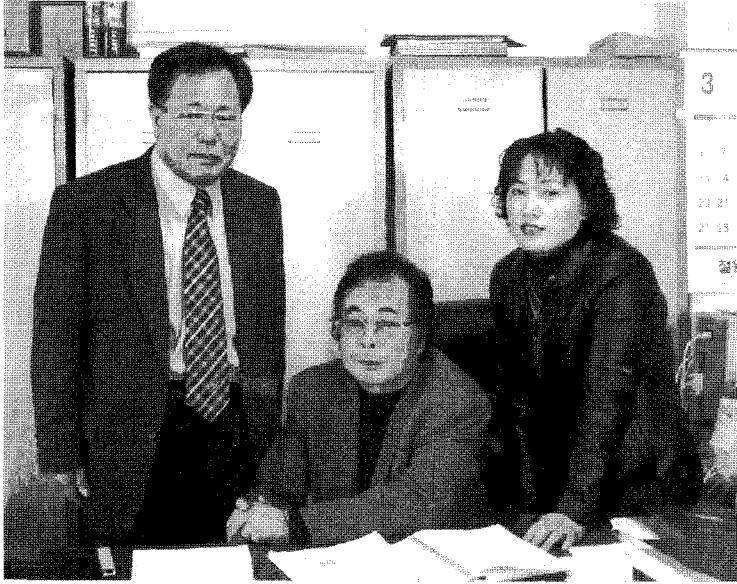
겨우내 불던 날카롭고 차갑던 바람대신 부드럽게 부는 봄바람을 맞으며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아직도 철원의 산에는 하얀 눈과 함께 겨울이 남아 있었다.

강 원도 철원은 농업의 도시이자 축산의 도시이다. 농업에 대한 양돈산업의 비중이 28%에 달하는 철원군은 약 105세대의 양돈농가가 총 11만 8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985년에 설립된 철원지부는 현재 성시명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 회원수가 87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지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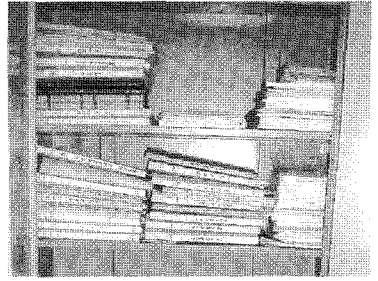
■ 지부단합의 미(美)와 힘(力)

철원지부는 성시명 지부장을 중심으로 유병억 부지부장, 최금복 감사 등 18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경우에 따라 긴급소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 긴급 현안문제에 민첩한 대처를 하고 있다.



◀ 철원지부는 96년 2월 13일 우수지부로 선정된 바 있다.

▼ 필요한 자료와 서류는 깔끔히 정리돼 있다.



▲ 성시명 지부장(왼쪽)은 김차복 상무(가운데)와 임진행 간사(오른쪽)과 함께 지부운영 및 행정업무에 관련하여 자주 얘기 나눈다.

또한 유급직원 2명(김차복 상무, 임진행 간사)을 두어 지부업무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일어나는 행정업무를 거의 모두 대행해주고 있다. 김차복 상무는 예전에 철원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행정업무에 무척 밝다. 지부장과 직원들이 이같은 노력의 결과는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회원들의 높은 참석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야유회 및 총회는 회원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의 집합력을 알 수 있는데, 철원군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을 모두 초청하는 데 참석자가 약 2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철원지부가 강원도에서 발휘하는 양돈인의 힘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할만하다. 철원군을 대표하는 철원지부는 이미 탄탄함을 갖춘 조직임에 틀림이 없다.

■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노력

한때 철원지부는 서울에 총 7개의 직관장을

설치·운영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회원들이 흩어지고 지부내에서 일부 회원간 불신이 생겨났다. 하지만 성시명 지부장은 자비를 쏟아서라도 철원 양돈인의 흩어진 힘을 곧추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며, 2003년 2월에 지부장을 역임한 이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금은 채무를 깨끗이 이행하고, 지부 살림살이도 조금 나아졌다.

철원지부는 3년째 시도의 협조를 얻어 모든 갱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액도 통일시켜 철원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한 품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고품질의 비육돈을 생산해내기 위한 지부장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돼지품질이 매우 개선되었으며, 곧 브랜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브랜드사업의 보다 탄탄한 현실화를 위해 군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모든 공동구매, 비육돈 공동출하를 통해 회원들

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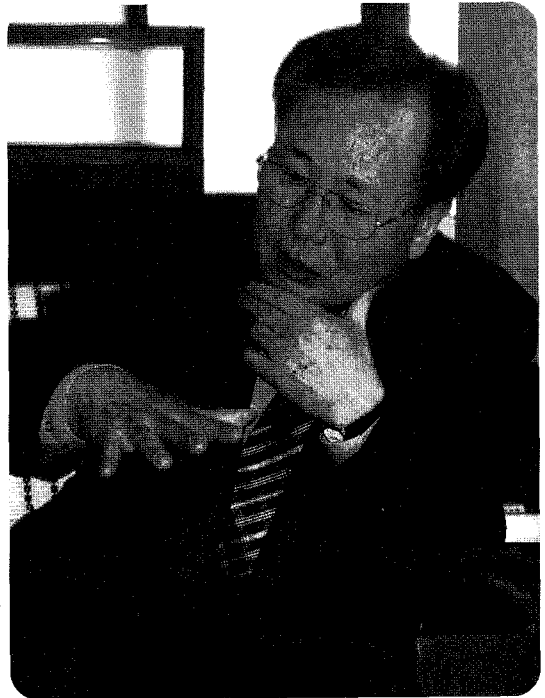
■ 회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지부

성시명 지부장은 브랜드 사업 이외에도 정부 지원사업을 계속 구상 중이며 이미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 지원도 받고 있으며, 특히 봄철을 맞이하여 구제역 등 질병 방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철원지부는 무인소독 자동화 시설 시범운영하는 방역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제, 사료효율 개선 첨가제 등의 공동구입을 통하여 지부회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철원군으로 부터 돼지고기 소비홍보비 지원 받고 있다. 철원 오대쌀로 유명한 철원군의 2대 농업산업인 양돈업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

“철원돼지가 철원 오대쌀과 더불어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철원 양돈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시명 지부장은 강조한다.

강원도의 지원으로 개최되고 있는 철원지역 양돈 세미나는 지역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매년 3회에 걸쳐 열리고 있다. 그동안 시도에서 개최하던 양돈인 집체교육과 세미나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시도의 양돈인 교육을 지부에서 직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0여명에 불과했던 과거의 세미나에 비해 지난 1월 21일, 김기룡 강사를 모시고 “겨울철 모돈관리 및 자돈관리 교육”을 주제로 했던 양돈세미나는 60여명의 지역 양돈인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성원을 얻었다. “겨울철 모돈관리 및 자돈관리 교



▲ 철원지부 성시명 지부장

육” 세미나는 철원지역의 거의 모든 양돈인들이 참가할 만큼 양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양돈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철원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병, 방역, 경영, 사양 등 양돈관련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양돈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뇨처리의 선구적인 지부, 액비탱크사업 활성화 추진

“현재 철원지역에는 총 134개의 액비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의 액비탱크 지원사업이 경종농가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액비탱크 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시명지부장은 얘기한다.



이에 철원지부는 올 4월부터 2곳의 회원농가를 선정하여 2개소씩 총 4개소의 액비탱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성과에 따라서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액비탱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액비탱크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양돈농가가 주위 경쟁농가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 현실성 있는 군납 단가 적용해야

“현재의 군납단가 산정방식은 실제 가격상승요인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양돈인이 지속적인 군납이 가능하려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가격결정이 바뀌어야한다. 돼지고기 유통시세가 생산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 적용 등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결정을 고스란히 양돈농가가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성시명지부장의 생각이다. 2004년과 2005년에 고돈가가 형

성되었는데 실제 군납농가는 손해를 봐야했다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격결정의 불합리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군납의 제반 수수료 및 출자금 부담이 과도하게 양돈인들을 압박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전국시세 적용 필요

한때 철원지부는 철원지역 양돈인이 한 목소리로 전국 시세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출하처에 의견 개진을 하여 수도권 시세 등으로 적용시킨 적이 있다. “지역적으로 작게 움직이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전 양돈인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성시명 지부장은 육가공업체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시세적용을 하는 것은 황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육가공업체들은 현재 서울시세가 전국이나 수도권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서울시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시세가 낮아지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안정되고 합리적인 시세 적용으로 인한 가격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철원지부는 회원들이 진짜 원하는 일을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또 과감하게 추진하여 회원들의 신뢰와 사랑의 힘으로 뚝뚝 뭉쳐져 있다. 때문에 양돈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철원지부의 양돈사랑이 언제까지나 모범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양돈**